英,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영업중단 명령

금융당국 "가상자산 업체 거의 허가 안 받아… 투자 문제 발생땐 도움 못 받아"
바이낸스 "아직 어떤 서비스도 제공한 바 없어… FCA 허가 활용하지도 않았다"

영국 금융당국(FCA)이 세계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영업중단 명령을 내렸다.

27일(현지시간)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FCA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자국 내 영업을 전면 금지했다고 전했다.

FCA는 "바이낸스가 영국 내 영업을 위한 어떠한 허가도 받지 못했다"며 "바이낸스는 우리의 사전 동의 없이는 사업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는 30일 저녁까지 영국 내 영업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단 영국 국민들은 다른 나라 사이트를 통해 바이낸스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다.

FCA는 아울러 가상화폐 관련 상품에 대한 고수익을 약속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가상자산 투자 상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업체 대부분은 FCA의 허가를 받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바이낸스는 지난해 5월 FCA 허가를 확보한 업체를 인수하고 한 달 뒤 FCA 허가를 받아 파운드와 유로화로 가상자산을 구매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바이낸스UK'를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낸스는 중국인 자오창펑이 설립한 회사로 '세금 피난처'인 케이맨 제도에 본사를 뒀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손꼽히며 수십 개의 디지털 코인, 선물, 옵션, 주식 토큰 등 전 세계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인 더블록크립토에 따르면 지난달 바이낸스는 약 1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거래량을 기록했다.

바이낸스 측은 FCA 발표와 관련해 "바이낸스마켓은 별도법인으로 바이낸스 웹사이트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바 없다"며 "바이낸스마켓을 인수하고 영국에서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으며 FCA 허가를 활용하지도 않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세계 각국은 바이낸스에 대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 일본 규제당국은 25일 바이낸스가 허가 없이 일본 거주자와 거래하고 있다면서 당국 허가 없이는 일본 내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 법무부와 국세청도 이미 바이낸스가 자금세탁 및 탈세에 연루된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바이낸스가 한국법인 바이낸스 유한회사를 통해 지난해 4월 출시한 '바이낸스KR'은 지난해 12월 24일 종료됐다. 한국 이용자들을 위해 원화스테이블코인(BKRW)을 이용한 원화 마켓을 운영하는 등 국내 시장 특화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해 영업을 접어야 만 했다.

허경진 기자

日, 도쿄 재확산에 "필요 땐 긴급사태"… 무관중 올림픽 지지

코로나 대책 주무장관 "음식점 술 판매 금지 등 엄격한 대책 검토해야"

뉴시스

일본 도쿄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긴급사태를 재발령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진은 일본 도쿄

일본 도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긴급사태를 재발령 가능성이 제기됐다. 도쿄도민 사이에선 올림픽을 무관중으로 치르자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은 27일 도쿄도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필요하면 긴급사태를 재발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책 주무장관인 니시무라 담당상은 이날 오전 NHK '일요토론'에 참석해 올림픽 개최 도시인 도쿄도의 감염 상황과 관련해 "음식점 등에서 술 판매 금지를 포함해 더 엄격한 대책을 검토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1일 도쿄도에 코로나19 긴급사태를 해제하고 그 기간 금지됐던 음식점 주류 제공을 일부 허용했다.

그러나 도쿄도가 전날 발표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34명으로 일주일 전에 비해 146명 늘었다. 일주일 평균 일일 확진자는 직전 일주일 대비 26% 급증한 476명으로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니시무라 담당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중증 혹은 경증을 보이는 젊은 층의 비중이 올라가면 중소 병원을 중심으로 부담이 커진다"며 "병상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책 강화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사태를 재발령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쿄도민 사이에선 올림픽을 무관중으로 치르자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아사히신문은 26~27일 도내 유권자 804명을 상대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관중 없이 치러야 한다'고 답한 이가 64%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관객 수를 제한해서 치러야 한다'고 대답한 응답자 비율(30%)을 크게 앞지른 것이다.

아사히는 19~20일 실시된 전국 여론조사에선 '무관중 개최'를 주장한 이들이 53%였지만 이번엔 조사 범위를 도쿄도로 국한해 무관중을 바라는 응답자 비율이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요미우리신문 역시 25~27일 도쿄 유권자 936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올림픽의 유관중 개최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자 비율이 57%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허경진 기자

브라질 대통령 탄핵 추진 가속화

대규모 반정부 시위 예고 집권기간 탄핵요구 121건

브라질 정치권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사진) 탄핵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좌파·중도좌파 정당과 범여권에서 발을 뺀 정당들이 30일 하원의장에게 보우소나루 대통령 탄핵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독직'을 주요 탄핵 사유로 추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인도 제약사 바라트 바이오테크가 개발한 코백신(Covaxin)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이를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상원 코로나 국정조사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권은 코백신 구매 비리에 대한 사법 당국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 국정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좌파 정당 지속 가능네트워크(Rede) 소속 한도우피 호드리기스 의원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연방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코백신 구매와 관련한 비리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조사를 지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독직이며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 집권 2년 반 만인 지금까지 하원에 제출된 탄핵 요구서는 121건에 달한다.

브라질 헌법상 대통령 탄핵 절차 개시 여부는 하원의장의 결정에 달렸다.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려면 하원에서 전체 의원 513명 가운데 3분의 2(342명) 이상, 상원에서 전체 의원 81명 중 3분의 2(54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브라질에서는 1992년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전 대통령과 2016년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 등 두 차례 탄핵이 이뤄졌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아르투르 리라 하원 의장은 그동안 탄핵 요구서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판단을 미뤄왔다.

보우소나루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29일과 이달 19일 좌파·중도좌파 정당과 시민·학생단체, 노동계 등이 참여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데 이어 다음달 24일에도 시위가 예고됐다.

정동현 기자

글로벌 클라스

베르나마통신 캡처

말레이시아에서 병원 측의 실수로 태어나자마자 헤어진 쌍둥이 자매가 19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하는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다.

병원 실수로 헤어진 쌍둥이 19년 지난 뒤 우연히 만났다

말레이시아에서 병원 측의 실수로 태어나자마자 헤어진 쌍둥이 자매가 19년 만에 극적으로 만났다.

2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언론 베르나마통신에 따르면 19년 전 클라탄주 코타바루의 병원에서 태어난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이 또 다른 여아와 바뀐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드르야니와 아드르야나는 이란성 쌍둥이로 알고 한 집에서 자라왔다. 그런데 최근 아드르야니의 진짜 쌍둥이 자매는 노라티라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드르야니는 몇 년 전 한 캠프에 참여했는데 이때 다른 학생들이 "아드르야니 너와 엄청 닮은 애가 있다"며 노라티라의 사진을 보여줬다.

그리고 아드르야니는 2019년 3월 동네 한 슈퍼마켓에서 노라티라와 마주쳤다. 아드르야니는 "우리 둘 다 말을 잃고 그저 서로를 바라봤다"고 말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지난해 8월 19일 아드르야니는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생일이라며 게시물을 올렸다. 이를 본 친구들은 노라티라의 생일도 이날이라며 놀라워했다.

DNA 검사 결과, 아드르야니와 노라티라가 99.99% 확률로 쌍둥이 자매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가족은 모두 함께 살기로 했다. 노라티나는 1월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경진 기자